

Policy Issue Brief

# 정책 이슈



Vol. 2  
2021.6.

## 1. 해외연구기관 정책연구동향

- 라스트마일(Last-mile) 생태계를 위한 넥스트노멀 전망: 팬데믹, 택배, 백신 [WEF&McKinsey]
- 지방 산업정책과 업종 혁신발전: 신에너지 자동차 정책에서 도출된 경험적 증거 [상해재경대학 재경연구소]
- 재난자본주의와 그린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두 가지 방향 [Japan Policy Research Institute]
- 지난 일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정책관련 심층분석 : 회복방안을 중심으로 [OECD]

## 2. 국내연구기관 정책연구동향

- 국내 니트족(NEET) 현황과 시사점: 니트의 장기화 예방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 글로벌 금융위기가 공급망 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 도로 투자 평가에서의 통행시간 신뢰성 편익 도입방안 [국토연구원]
- 코로나19 확산이 서울 지역에 미친 경제적 손실 [서울연구원]

발행처 충북정책개발센터  
발행인 센터장 정용일  
전문연구원 김은미  
전문연구원 이민주  
전문연구원 조윤경  
발행일 2021. 5. 31.

## 3. 충청북도 중앙공모사업 선정현황: 4~5월

## 4. 인포그래픽: 민생경제 빅데이터 분석



# 라스트마일(Last-mile)<sup>1)</sup> 생태계를 위한 넥스트노멀 전망 : 팬데믹, 택배, 백신

Pandemic, Parcels and Public Vaccination: Envisioning the Next Normal  
for the Last-Mile Ecosystem

○ WEF & McKinsey(2021.4.)

번역 : 이민주

충북정책개발센터 전문연구원

## 서론

-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급격한 변화를 촉발시킨 가운데, 기업들은 라스트마일 배송에 대한 전략을 재고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모색해 왔음
- COVID-19가 창궐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라스트마일 배송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COVID-19 백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라스트마일 배송에 있어 유례없는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에서는 라스트마일 배송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여 물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탄력적·환경친화적 공급망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과 전략을 기술하였음

## 라스트마일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는 6가지 변화

### 1. COVID-19로 가속화된 라스트마일 생태계의 진화

- 도시화와 스마트기기의 유비쿼터스화, 혁신적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에 힘입어 온라인 매출이 2014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3조 5천 억 달러를 넘어서었으며, COVID-19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킴
- 2020년에는 온라인 쇼핑 택배가 약 25% 증가했으며, 비대면 배송 방식을 특징으로 함

### 2. 온라인 구매 시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증가

-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의 56%, 일반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구매 시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건강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매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 이러한 현상은 COVID-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3. 탈탄소화의 가속화

- 일부 기업과 도시는 이미 탄소제로(carbon-zero) 배송을 표명하였고(IKEA 등), 유럽연합(EU)과 중국에서는 COVID-19 관련 경기부양책에 그린모빌리티와 물품수송 지원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1 ) 라스트마일(Last-mile): 원래는 사형수가 독방에서 집행장소까지 걸어가는 거리로 '마지막 구간'을 의미. 유통/물류업에서는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송의 마지막 구간, 고객과의 접점을 말하며,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까지의 전 과정 속에서 차별화된 서비스/기술을 강조함

#### 4. 예산문제와 교통량 증가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도시들의 라스트마일 전환 시도

- COVID-19로 도시들은 전례 없는 예산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임
- C40 Cities<sup>2)</sup>과 많은 도시들은 이 모멘텀을 계기로 탈탄소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파리의 “15분 도시15-minute city” 등)

#### 5. 검증된 기술들에 의한 라스트마일 생태계 혁신

- 첨단기술 발전으로 검증받은 기술들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소유비용이 낮아지며 라스트마일 혁신이 진행됨 (유럽의 EV 구입가격은 경유차 가격에 거의 근접)
- 전 세계적으로 택배 보관함이 도입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수집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경로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음

#### 6. 지속가능한 배송차량의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등장

- 이륜차에서 사륜차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 업체들은 배송을 목적으로 상품을 확장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음

#### 라스트마일 배송의 차기 목표

- EV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율형 택배(autonomous goods transport)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교통에 혼잡을 줄 수 있으나, 벨기에 브뤼셀처럼 다른 도시에서도 도로에 저속구역(low-speed zones) 도입을 추진한다면 도로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음
- 실시간 동적 라우팅(dynamic routing)<sup>3)</sup>과 적재물자 분배(capacity-sharing)로 물동량은 점차 완화될 수 있음
- COVID-19로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라, 아마존(Amazon) 등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실시간 동적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으며, 개별 상품마다 디지털식별 코드 등을 부여하여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 으로 공유 가능
-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택배의 이동경로를 최적화함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
- 재택근무로 인해 택배 목적지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카고 바이크(cargo-bikes), 전기 이륜차 등 배송수단은 다양해질 전망임
- 데이터 기반 솔루션으로 도시들은 교통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거시적 측면에서 도로이용자들을 위한 교통 가용성 및 품질의 확보와 개선하는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C40 Cities: 전 세계 97개의 도시를 연결하여 기후행동을 취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네트워크

3) 동적 라우팅(dynamic routing): 라우터가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여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

## 라스트마일 백신 배송에 대한 과제와 솔루션

- 백신 배송은 라스트마일 생태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간 배송 속도와 효율성에 큰 차이를 드러냄
- 보건의료 및 물류 업계 이해관계자의 연계 수준이 높은 국가의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스라엘, 영국, 칠레, 싱가포르 등)
- 주요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음
  - 까다로운 백신보관조건으로 인한 수송·유통 및 인프라 문제
  - 백신공급체계의 디지털화 구현 문제
  - 백신 배송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로 인한 사이버범죄 증가 문제
  - 소외지역에 대한 백신보급 불평등 문제
- 잠재적 솔루션은 다음과 같음
  -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부 리더십: 정부는 수요를 관리하고,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공급망을 철저히 투자·관리할 책임 有
  - 데이터 통합 및 디지털 공급망 관리를 위한 물류 파트너십 구축
  - 실시간 경로 선정에 있어 전문화 및 디지털화
  -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급망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물류계획수립으로 백신 손상 최소화
  - 정부와 보건기업 등이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통해 초고령화 지역, 공공서비스 부족 지역 등 소외지역 및 소외 계층에 백신 제공  
(ex. 'Black Doctors'는 현재 백신보급이 힘든 지역에 백신센터를 설립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결론

- 백신배달 과제는 라스트마일 생태계의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을 보여줌
  - 제조장소와 상관없이 상품의 '당일배송'이라는 혁신을 이룬 반면, 백신 배송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비효율성이 존재
- 라스트마일 관계자들은 교통혼잡, 탄소배출, 배송비 절약 등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개입해야 함

# 지방 산업정책과 업종 혁신발전 : 신에너지 자동차 정책에서 도출된 경험적 증거

地方产业政策与行业创新发展-来自新能源汽车产业政策文本的经验证据

○ 상해재경대학 재경연구소(2021.5.)

번역 : 조윤경  
충북정책개발센터 전문연구원

## 서론

-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육성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목표로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고 양질의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함
- 신에너지 자동차의 혁신적인 잠재력과 산업화 수준을 제고하여 자동차 업종별 산업을 확장·촉진시키고, 전반적인 경쟁 능력을 강화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지방 산업정책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혁신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지방 자동차 산업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정책에 대한 현황 및 제언

-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정책은 업계의 발전을 혁신적이고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있음
  - 환경정책 중 신에너지 자동차에 관련된 금융지원, 법·규범 재정, 재산권보호 등은 타 정책도구보다 효과적인 결과 도출
  -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만든다면 업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순환근무 산업정책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신에너지 산업은 중앙정부의 정책 중 일환으로 그와 관련된 정책입안자를 지방정부에 파견하거나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은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
  -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확보 할 필요성 有
- 지방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시장경쟁 유도와 기업 융자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혁신을 제약하는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인 융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나 방법 실시
  - 또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별 시장경쟁을 장려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

## 시사점

- 신에너지 자동차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강력한 신동력 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생태계 개선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첫째,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함
- 둘째,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 정책을 채택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장려해야 함

# 재난자본주의<sup>1)</sup>와 그린뉴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두 가지 방향

Critique: Disaster Capitalism or the Green New Deal

○ Japan Policy Research Institute(2021.4.)

번역 : 이민주

충북정책개발센터 전문연구원

## 팬데믹의 세 단계 양상

- 1단계 – 사상자 폭증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 이 경우, 보호장비, 병원침상, ICU(Intensive Care Unit)<sup>2)</sup> 및 인공호흡기 등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수물자를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임
- 2단계 – 전염병 통제를 위한 봉쇄: 바이러스 진압 혹은 백신 개발까지 필수물자(특히 식품)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전기, 물 등)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3단계 – 경제적 여파 지속: 이후 재난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 혹은 급진적 사회·경제개혁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COVID-19로 드러난 서구 시스템의 취약성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보건시스템, 소규모 의료 공급망, 첨단 정보 및 모니터링 네트워크, 사회조직,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의 이점이 부각되었고, 특히 위기 국면에서의 국민 통합과 공통의 목적이 강조되었음
-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서구 사회에 부재한 요소로, “최소 비용과 최대 이익 추구”라는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극도로 취약한 시장구조에 의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COVID-19에 대한 서방국가의 대응책은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쪽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임
  - 미국의 경우, 팬데믹 선포 이후 가장 먼저 실업보험의 확대, 일반 납세자에 대한 현금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극빈자 세금 감면 등을 실행
  - 그러나 실업수당 청구가 쇄도하자 각 주의 등록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금도 빠르게 고갈되었으며, 개인 부채는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있어 팬데믹 3단계에 이를 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 가능성 有
- 보다 조직적이고 상호지원적이며 결집된 지역사회와 대응역량 및 책임감을 갖춘 국가일수록 봉쇄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음

1)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 충격적인 재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 자본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함(ex. 미국의 의료제도 민영화)

2) ICU(Intensive Care Unit): 병원 내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한 특수치료시설로 집중치료시설 혹은 집중감시시설이라고도 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놓인 두 가지의 길

- 첫 번째는 COVID-19 이전의 위계질서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임
  - COVID-19로 인해 축적된 부채, 부동산 압류, 실직자 급증, 공립학교 및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의료보험의 퇴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혁을 시도하는 방향임
  -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부채에 대한 구제와 보편적 의료 복지, 사회 인프라 및 주요기관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논의 전개 가능
  - 국가와 기업은 주도적으로 사회와 환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에 안전한 환경과 필수 물자 공급망, 공공의료서비스 등의 구축 시도 가능

## 공공성과 민주성, 그리고 그린뉴딜

- 국가의 번영을 이끄는 것은 공공투자, 사회보험, 첨단 과학·기술, 효과적 조직 등이며, 적합한 모델로 공공성과 민주성을 원동력으로 하는 뉴딜과 그레이트 소사이어티(New Deal and Great Society)를 들 수 있음
- COVID-19로 촉발된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그린뉴딜이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구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자원소비, 상호지원 시스템, 일자리 보장과 안전성 보장 등을 실현 가능
- COVID-19로 기존의 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혁신적인 사고와 정치적 논쟁, 급진적 개혁 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지난 일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정책관련 심층분석 : 회복방안을 중심으로

An in-depth analysis of one year of 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y responses to COVID-19 : Lessons learned for the path to recovery

○ OECD(2021.3.)

번역 : 조윤경

충북정책개발센터 전문연구원

## 서론

- 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봉쇄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생산율 3.4%가 감소됨
-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의 약 70~80%가 수익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OECD가 발표한 기업 파산율 이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회복정책<sup>1)</sup>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
  - '20년 여름 유럽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다양한 회복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 중 혁신·디지털화·환경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
  - 유럽국가들 뿐만 아닌 다른 OECD 국가들 역시 회복정책을 채택하고 시행 중
  - 이는 '20년 4분기, '21년 1분기 기업의 대규모 폐업을 저지할 수 있는 발판

## 회복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5가지 회복방안 제시

- ① 디지털 전달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보안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기존기업과 창업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정책을 지원해야 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시켜야 함
- ③ 신규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창업 정책을 제안해야 함
- ④ 중소기업의 대표 중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해야 함
- ⑤ 기업뿐만 아닌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책을 구축해야 하며, 자영업자만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식을 고안해 내야 함
- ⑥ 중소기업의 자본, 채무 등을 조사하여 과잉부채로 인한 폐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⑦ 비상시 유동성 있는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해둬야 함
- ⑧ 중소기업의 창조적 파괴<sup>2)</sup> 과정을 지원하고 동시에 기업가 정신 보호해야 함
- ⑨ 회복정책이 중소기업과 기업가의 상황과 관점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적합한지 점검받을 필요성이 있음
- ⑩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화가 회복될 수 있는 초석 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함
- ⑪ 기업(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의 회복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⑫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모형을 미래지향적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구축해야 함
- ⑬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다양한 단계의 관리 메커니즘을 확보해야 함
- ⑭ 중소기업 및 기업가가 회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함
- ⑮ COVID-19에 대응하는 기업가정신 정책의 새로운 시도가 고려되어야 함

1) 회복정책: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정책

2) 창조적 파괴: 낡은 것은 계속 파괴하고 새로운 것은 계속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경제구조를 혁신해 가는 산업개편 과정

# 국내 니트족(NEET) 현황과 시사점 : 니트의 장기화 예방이 시급하다

○ 현대경제연구원(2021.3.)

요약 : 조윤경

충북정책개발센터 전문연구원

## 서론

- 20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9%로 상승되었고,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46.4%로 저조하게 나타남으로써 청년층의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sup>1)</sup>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국내 니트족 현황을 5가지로 분류

- ① **전체 니트족 추이**: '15년 약 26.2만 명까지 하락했던 국내 니트족 규모는 '20년 43.6만 명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전년대비 24.2%(약 8.5만 명) 증가함
- ② **성별 니트족 추이**: '20년 기준 남성 니트족 규모는 24.5만 명, 여성 니트족 규모는 19.1만 명으로 남성 니트족 규모가 크지만, 동년대비 여성 니트족 규모는 남성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임
- ③ **학력별 니트족 추이**: 전문대출 이상 니트족 규모는 '16년 9만 명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나, '20년 18만 명으로 약 100% 증가했으며, 고졸 이하 니트족은 17.1만 명에서 25.6만 명으로 약 8.5만 명 증가함
- ④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 무직 1년 이상 니트족은 '17년 6.6만 명에서 '20년 12만 명으로 약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직 경험이 없는 니트족(11.8만 명)과 무직 1년 이상의 니트족과 더하면 23.8만 명으로 '20년 전체 니트족의 약 54.6%를 차지함
- ⑤ **학력별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 전체 니트족에서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고졸 이하 니트족이 60.3%로 5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대출 이상은 46.5% 나타남

## 시사점

- 니트족의 증가 및 장기화는 개인적인 문제(생애소득 감소, 후생 수준 하락 등) 뿐만 아니라 잠재적 성장을 하락 (사회적 비용유발, 노동투입량 감소 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첫째, 니트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현황 파악 등 니트족 특성에 따른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적절한 정책 대응안을 마련해야 함
- 둘째, 정규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에 관한 청년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는 학습의욕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셋째, 공공부문의 직업중개기능 강화, 직업 탐색 기회 강화 등의 청년 실업 대책을 마련하여 니트족 장기화를 예방하고, 그와 관련된 환경을 개선하여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 넷째, 성별, 학력 등에 따라 니트족의 특성도 달라지는 만큼 정책 대응에 있어서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함

1) 니트족: 교육을 받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청년을 말함

# 글로벌 금융위기가 공급망 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산업연구원(2021.1.)

요약 : 김 은 미

충북정책개발센터 전문연구원

## 서론

- 본 연구는 공급망의 형태를 구분하고, 외부충격 시 공급망 형태별로 나타나는 고용 영향을 실증분석한 후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형태별 공급망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

- 국제 생산분할은 생산비용 차이 외에 언번들링(unbundling) 비용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공급망 혹은 생산과정에 따라 확연한 차이 존재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별로 최종재 생산을 위해 국경을 몇 번이나 넘어 생산하는지에 대한 국경교차 수와 이를 통해 분류된 형태별 공급망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음
- 특히, 기존 연구 방법에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함께 국제산업연관표에서 제공하는 42개국의 공급망 형태를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형태별 공급망 결정요인과 고용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수행

- 국제산업연관표에서 제공하는 국가/산업/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구분된 형태별 공급망의 결정요인과 형태별 공급망 내의 고용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음
- 글로벌 부가가치 측면이 아닌 생산과정 측면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함
- 특히, 과거 위기가 공급망 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여 현재 발생한 위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됨
- 본 연구의 결과가 전방·후방연계 참여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 또는 산업의 공급망 형태에 관한 기초연구로의 토대와 분석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무역 비용 및 국경 통과 시간 등을 점감(漸減)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정·보완 필요함
- 국경교차 수가 증가할수록 순차형 공급망 내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기로 인한 공급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고용의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는 지원 필요함
- 순차형 공급망의 제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장기적 관점에서 비숙련 노동을 숙련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책적검토 필요함
- 금융위기 이후, 방사형 공급망 내 산업의 경우 전방 연계 참여와 고용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 투자 평가에서의 통행시간 신뢰성 편익 도입방안

○ 국토연구원(2021.3.)

요약 : 김 은 미

충북정책개발센터 전문연구원

## 서론

- 도로 부문에서의 통행시간 신뢰성 편익의 개념을 살펴보고, 실제 교통투자 타당성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
- 통행시간 신뢰성은 통행시간의 변동 정도를 의미하며 편익화하기 위해서는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산정과,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원단위) 산정 절차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관련 연구에서는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주류

##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는 미흡

- 고속도로와 같은 상위 위계 도로의 경우 통행시간 지표(표준편차) 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는 반면 하위 위계 도로의 경우 데이터 구득에 제약이 있음
- 고속도로의 사업 시행 시에 경쟁 노선인 하위 위계 도로의 통행량이 줄어들어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도로의 신뢰성 지표 변화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한국교통연구원의 VIEW-T 데이터의 존재는 고무적

- VIEW-T에서는 하위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 유형의 시간대별 속도, 교통량을 수집·가공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산정 연구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일 것으로 판단됨
- 현재 VIEW-T에서는 시각화된 그림만 조회할 수 있지만, KTDB 교통분석자료 신청 등을 통해 도로 링크의 속성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다면,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여러 형태의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모형을 정산해본 후, 어떤 계수 및 모형식이 적합한지 확인 할 수 있으며, 본 페이퍼에서 살펴본 이상치 제거 및 자유통행 속도 기준도 제시할 수 있음

## 결론

- 향후 진행되는 사업 및 연구 분야에서 각 부문의 타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
- 신설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를 산정할 것인지, 표준편차의 변화를 금액화하기 위한 원단위가 어떤 값이 타당한지 등의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확산이 서울 지역에 미친 경제적 손실

○ 서울연구원(2021.4.)

요약 : 김 은 미

충북정책개발센터 전문연구원

## 서론

- 본 연구는 2019~2020년 신한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음식점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손실 규모를 살펴보고,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매출 감소 효과를 추정

### 코로나19이후 생활인구 감소로 인한 점포 매출액 하락

- 서울시 생활인구는 2020년 6주차부터 전년 대비 차이를 보임. 특히 관광특구에서는 25.5%, 발달상권에서는 13% 감소하였음
- 1주차부터 40주차 동안 서울 점포 매출액은 평균 6.2% 감소했으며, 그 규모는 약 4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었음
- 매출 감소가 가장 컸던 업종은 한식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1%, 약 1조 5천억 원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는 상업시설이 밀집한 마포구 서교동과 서대문구 신촌동의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코로나19이후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액 하락

- 2020년 음식점업은 전년 대비 평균 매출이 11% 감소했으며, 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 효과는 14%로 추정되었음
- 유동인구가 평균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효과는 약 -2.6%로 추정되었음
- 유동인구 감소가 더 컸던 관광특구와 발달상권에서는 매출액 변화가 각각 -8.7%, -4.4%로 추정되었음
- 반면 소매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평균 매출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결론

- 서울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소매업의 경우 소폭의 매출 상승이 발생되었음
- 백신의 보급에 따른 집단 면역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변수들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 효과 또한 업종 별로 비대칭적으로 발생해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우려됨
- 서울시는 유동인구, 업종별 매출액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피해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 중앙공모사업 선정현황

## 신성장 동력과

### ● 충북도, 2021년 제조로봇 플러스 공모사업 선정

충청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난 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전담하는 “2021년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9억을 확보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 개발한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37개)을 지역 특화업종에 개량 및 최적화해 공정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의 수요기업에 실증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 억 원(국비 29억 원 지방비 12.6억 원 기업부담 8.4억 원)을 투입해 도내(청주, 충주, 제천, 음성, 진천, 옥천) 21개 수요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내 화장품 및 식가공 업종의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활용한 플러스 공정모델을 개발·적용·최적공정 설계를 위한 컨설팅·공정모델 실증·제조로봇 공정용 GMP 및 HACCP 인증·협동로봇 안전인증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게 된다.

• 담당주무관: 흥제숙(220-8432)      • 보도일자: 4월 1일

## 농식품 유통과

### ● 2021년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에 옥천군 선정

2021년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옥천군이 최종 선정되어, 2022년부터 4년간 국비 49억 원을 확보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농림사업을 포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국적으로 17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해 전문가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옥천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이 선정됐다. 충북도와 옥천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같은 공급 기반 시설과 농가 교육,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직매장 홍보 등 푸드플랜 실행에 필요한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기반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 등 운영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 담당주무관: 강창원(220-3673)      • 보도일자: 4월 9일

## 에너지과

### ● 충북도, 전국 유일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

충청북도는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4.5억 원(국비 98억 원)을 투자해 청주 오창(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내)에 부지 5,000㎡, 지상 2층 연면적 4,191㎡ 규모의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하여 전극제조장비 등 5종 43대의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주요 부품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실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준의 중대형 배터리 셀을 제작하여 성능평가까지 받을 수 있고, 평가결과 피드백, 오류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충북은 이차전지 생산과 소재부품 검증 및 사업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 분야 글로벌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담당주무관: 김미연(220-3282)      • 보도일자: 4월 18일

## 청년정책 담당관

### ●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괴산군 선정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괴산군 감물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인 (주)뭐하농이 최종 선정됐다.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는 전국 144개 청년단체(기업)가 신청해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괴산군 (주)뭐하농을 포함한 12개 단체가 선정됐다.

청년농부가 모여 만든 괴산군 감물면 '(주)뭐하농'에서는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이론 교육, 실습, 청년농업인 멘토링 등 농업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청년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한다.

• 담당주무관: 박영빈(220-2864)      • 보도일자: 4월 19일

## 투자 유치과

### ● 충북도, '2021년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1년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업종 고도화 촉진 등을 위해 R&D, 기업 지원 등의 혁신기능 집적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투자해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3,830㎡, 지상 5층 연면적 5,500㎡ 규모의 산단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센터가 건립된다.

혁신지원센터는 업무지원시설, R&D · 시제품제작 등 창업보육시설, 혁신 · 융합 지원기관 등이 입주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200여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제조, 융합 기술, 경영혁신으로 AI 기반의 도심형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도 지원해 나가는 등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담당주무관: 최승환(220-3322)      • 보도일자: 4월 25일

**신성장  
동력과****● 충북도,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선정**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충북형 스마트 SAFETY, O2O, CONVENIENT' 사업이 예비사업으로 선정돼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선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은 지자체와 기업·대학 등 민간이 함께 창의적인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주관 3개 시군(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을 참여시켜 광역스마트시티를 기획한 것이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사업 대상지는 정부 정책적으로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오송, 오창지역으로 각종 설문조사와 연관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의료, 교통, 생활 분야 스마트솔루션을 기획했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민간기업, 대학과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담당주무관: 이경관(220-8423)      • 보도일자: 4월 26일

**신성장  
동력과****● 충북도, 공공데이터 뉴딜-기업 매칭 공모 7개 사업 선정**

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7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3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해당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구축·가공이 필요한 행정·공공기관과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기업을 매칭하여 예산 및 청년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3월 초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목표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활용성·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 위원회의 서류심사, 온라인 발표평가 등을 거쳐 4월 말 최종 선정됐다.

선정사업으로는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재가공 활용 개선,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물환경 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기환경 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노약자·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정보 제공 API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청주시 ▲AI기반 CCTV 영상 분류 및 보관 학습데이터 공개 사업, 충주시 ▲전통시장 사용자 맞춤형 맵 서비스 개발 등 2개사업에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확보했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에 청년인턴 72명을 참여시켜 공공데이터 개방·품질·실측 등 공공데이터에 관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데이터 분야 경력 개발과 취업을 6개월 간 지원할 예정이다.

• 담당주무관: 김효선(220-8494)      • 보도일자: 4월 28일

**경제  
기업과****● 충북도, 산업부 지역대표 중견기업 공모사업 2개사 선정**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1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청주시의 (주)심텍과 자화전자(주) 2개사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기업당 국비 7억원과 도비 1억 4천만 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선정기업에는 지역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R&D와 함께 수출 마케팅, 특허전략 수립, 경영전략 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 담당주무관: 박은경(220-3222)      • 보도일자: 4월 29일

## ● 충북도, 2022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2개 사업 선정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60억 원을 확보했으며, 선정된 사업은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 구축사업'과 '천연물기반 의료기기 인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다.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은 모빌리티 전장부품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충북도는 충주시 기업도시 내에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20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23,828㎡, 연면적 3,187㎡, 지상 1층 규모의 모빌리티 기능안전 대응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천연물기반 의료기기 인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도내 대표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의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 선진화를 목적으로 하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관으로 충북대학교병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공동 참여하여 2022년부터 3년간 국비 60억 포함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청주시 오송첨단 의료복합단지 일원에 천연물기반 의료기기 국내외 인증평가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전하고 있는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다변화·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담당주무관: 박상준(220-8473), 한승창(220-4522)

• 보도일자: 5월 1일

## ● 충북도, '2021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모 선정

충청북도는 탄소중립시대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73.8억원(국비 73억원)을 투입해 충북 음성 성본 산업단지 내 13,573㎡부지에 지상 1층 2,310㎡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중부권 기술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배터리 분석시스템 등 7종 19대의 배터리 분석·성능검사 장비를 구축되며,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재제조하여 새로운 응용제품 개발 시 안전한 시장 출시를 위한 성능 및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 담당주무관: 김미연(220-3282)

• 보도일자: 5월 11일

## ● 충북도·청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청주대는 금년도 공모사업에서 도내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5년까지 총 10억원(국비 5, 지자체 2.5, 대학 2.5)의 사업비를 확보해 향후 5년간 사업을 운영한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취업에 꼭 필요한 입사지원서 작성방법과 면접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역량을 키우기 위한 실시간 라이브 자격증 취득강의 등을 제공한다.

• 담당주무관: 이연준(220-2874)

• 보도일자: 5월 11일

## 화장품 천연물과

### ● 충북도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최종 선정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신규과제인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장비·시설 등)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제천 제2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과 인근부지에 금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01억 원(국비 60억 원, 도비 15억 원, 제천시 25억 원, 기타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을 구축한다.

이번에 선정된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사업을 통해 이러한 오염과 재배 조건에 따른 천연물 원료 품질 문제를 해소하고, 표준화된 고품질 천연물 원료 소재의 대량생산 및 상시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충북이 천연물 소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담당주무관: 김성은(220-4622)      • 보도일자: 5월 12일

## 신성장 동력과

### ● 충북도 '2021년 AI융합 신산업 창출분야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1년 AI융합 신산업 창출분야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웰케어산업에 AI(인공지능)를 융합해 지역산업 발전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하 충북과기원)은 지난해부터 베스티안병원, 충북대병원, 인공지능전문기업인 (주)아크릴 등 11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융합 사업모델을 개발했다.

충북도는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2023년(3년간)까지 143억 원(국비 100억 원, 도비 7억 원, 청주시 3억 원, 기타 3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형 웰케어 비즈니스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증데이터를 수집해 제품 공동연구개발, 기술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맞춤서비스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유관 산업군의 데이터를 융합한 지식정보 기반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전주기적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

• 담당주무관: 안치현(220-8422)      • 보도일자: 5월 13일

## 여성가족 정책관

### ● 충북도,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사업 (청년특화분야)' 선정

충청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사업(청년 특화분야)에 선정돼 국비 1억 4천만원을 확보,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청년여성 70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직업 훈련과 취·창업 고용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 담당주무관: 이수민(220-3932)      • 보도일자: 5월 20일

## 신성장 동력과

### ●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공공건축물 33동(보건소 22, 어린이집 8, 의료시설 3)이 최종 선정되어, 지난 4월 확보된 국비 28억을 포함해 총 국비 133억을 확보했다.

청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07억 원을 들여 시스템 에어컨 설치, 외내벽 공사, 고효율 난방장치 교체 등의 공사를 통해 진료의 효율성을 높였고,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 34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창호, 단열, 화장실 공사를 진행했다.

충주의료원도 18억의 사업비로 단열, 에너지모니터링 등의 설치하여 에너지효율성이 향상된 녹색건축물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담당주무관: 조형숙(220-4463)      • 보도일자: 5월 24일

## 신성장 동력과

### ● 충북도,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 선정

충북도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충북도와 산업부가 추진하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는 국내 최초 산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제3자 전문기술지원센터로, 산업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가 대기환경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저감기술 보유기업 모두를 지원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앞으로 올해부터 3년간 청주시 FITI시험연구원에 센터 구축 등으로 국비 96억 원을 포함한 약 275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기술 보유기업에는 공동 연구 장비를 제공하고, ▲배출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관련 법규 및 신기술 전문교육 등 전국 산업계 미세먼지 관련 기업 모두를 위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 담당주무관: 임정빈(220-8443)      • 보도일자: 5월 31일

# 민생경제 빅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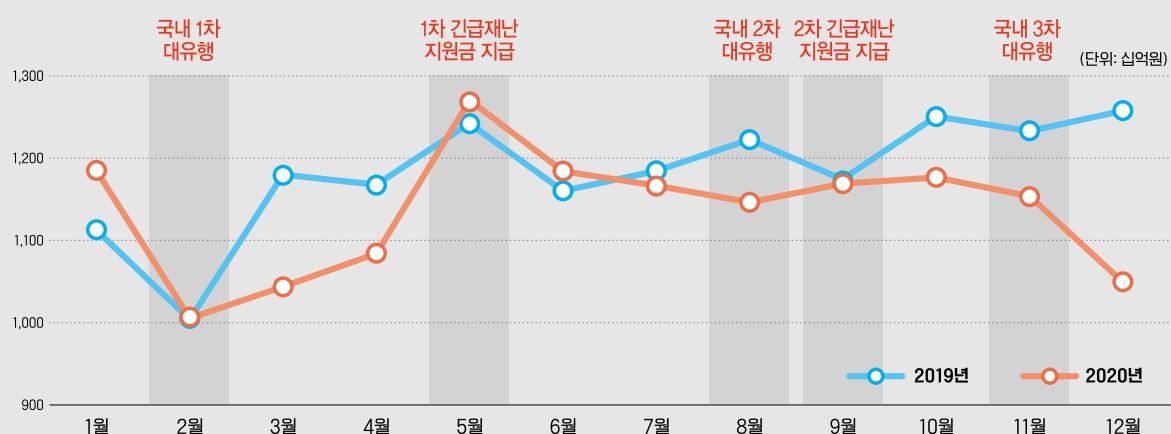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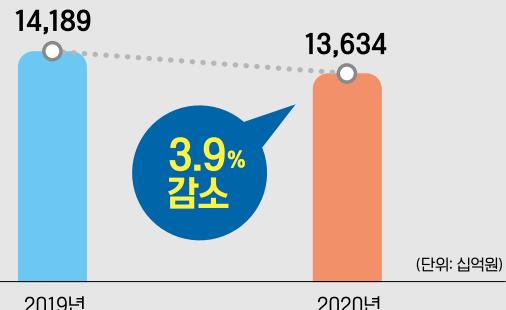
## 카드 매출액 비교 (2019~2020년)

공간적 범위 충북지역에 위치한 신한카드 가맹점

시간적 범위 2019년 ~ 2020년

대상 업종 신한카드 업종 분류 사용, 지역 소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  
\* 주요 제외 업종 : 보험, 통신, 자동이체, 제약, 세금, 흡연, 여행사 및 온라인 업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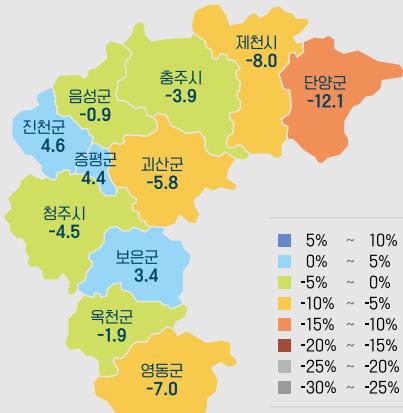
소비 금액 개인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 신한카드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하여 전체 카드 매출 금액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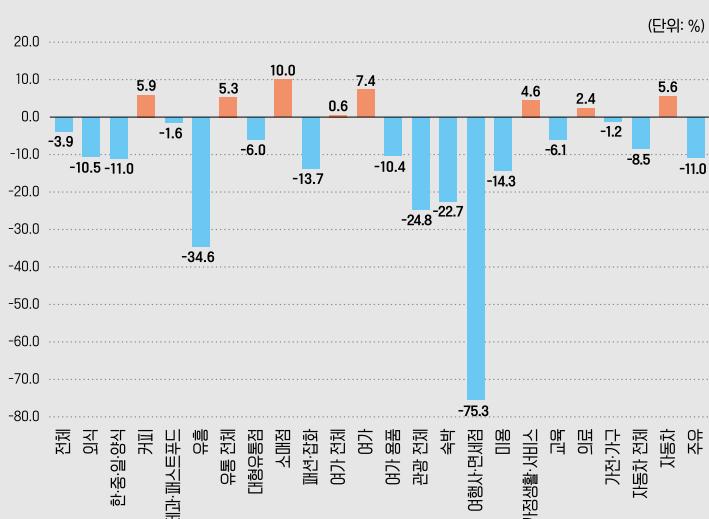
2020년 2~4월 카드매출액은 코로나 국내 1차 대유행의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임

2020년 카드매출액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약 1조 2,500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임

## 지역별 전년대비 증감률 (2019~2020년)



## 업종별 전년대비 카드 매출 금액 증감률 (2019~2020년)



# 정책 이슈



Brief

**CRI**충북연구원 | 충북정책개발센터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HUNGBUK POLICY DEVELOPMENT CENTER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